

유량적 접근을 통한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의 중심기능 및 기초수요변화

- 공주시와 유구읍의 1995-2009년 소매점 및接客업소 변화를 중심으로 -

김 정 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

Approach for the Flow Analysis of Changing Central-place function and Basic demand between The Central City and Small town

Kim, Jungta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for the flow analysis of changing central-place functions and basic demands between the central city and the small town. Under the rural society progresse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mall town changes in the relation to the central city. The subject of study is based on changes in demand for retail and hospitality. The small town is providing basic demands and urban services primary for the rural in the settlement system. Because of the rural depopulation and the aging of society, Retail and hospitality in the rural is reducing of the facility followed. But the majority of related researches are stocks approach. These studies are useful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 of small town, bu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city. In this situation after this study using the function index is set up a concept model, it examines for the basis of changes in demand for the small town.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he changes of retail and hospitality are more severe in the more small town than in the central city. Whereas the small town with a population decline is consistent with the reduced number of branches, Population growth in the central city is reduced to the number of the Number of branches. The central-place function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central city. While the younger generation, recreation, etc. related retail are disappearing rapidly, the mainstream of small town is grocery, home improvement, restaurants.

Key words : Central-place function, basic demand, small town, rural change

1. 서 론

읍면소재지는 정주체계상 농촌과 도시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결절지역으로, 기능적으로는 농촌이 필요로 하는 도시적 수요와 기초생활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농촌사회의 과소화, 노령화로 읍면소재지 내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소매점과接客업소 감소와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교통망 확충은 거점도시와의 빈번한 교류를 발생시키며, 기초생활면에서 읍면소재

지가 담당하던 서비스기능이 상당부분 거점도시 영향권 아래 놓이며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일련의 농촌사회 내외부의 변화로 대부분의 읍면소재지가 쇠퇴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소재지 내 기초수요 변화 상태를 살펴보는 일은 농촌배후지로서 읍면소재지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읍면소재지 내 주민수요에 기초한 생활서비스 공급방안 마련 등 농촌정주체계 정립을 위해 중요하다.

읍면소재지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는 읍면소재지의 입지요인 등 공간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읍면소재지 내 상점 등 기초수요와 관련한 연구는 읍면소재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거점도시와의 관련성과 읍면소재지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tae

Tel : 031-420-3448

E-mail : kimjungtae@paran.com

내 인구학적인 변동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인구 규모에 따른 시설종류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읍면소재지 내 기초수요변화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은 있으나, 중심배후도시와 어떠한 연관을 맺으며 변화하는지, 그리고 읍면소재지 내부 인구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읍면소재지와 관련되는 통계자료 구득이 쉽지 않아 공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수의 방법론은 적용가능하나, 대다수 통계자료가 시·군 단위로 작성되어 시·군 내 읍·면에 적용하기 어렵다.

소매점은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기본시설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기초수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공급처이다. 또한 접객시설은 오락, 여가, 매식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매점과 접객시설은 곧 지역사회 주민의 기초수요가 가장 투명하게 반영된 기능들로 볼 수 있다.

최근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에 따라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 개발전략 및 건전한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차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읍면소재지와 지역거점도시와의 관계 및 읍면소재지 기초수요변화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읍면소재지 기능유지 및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지역거점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읍면소재지 내 인구학적인 변화에 따른 읍면소재지 중심기능과 기초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며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와 달리 지역거점도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량적 접근방법을 통해 읍면소재지 내 변화 상태를 분석하였다.

II. 관련연구 검토

1. 공간의 계층구조와 상호작용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국토공간구조론, 도시위계법칙, 중심지와 배후지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간구조·계층연구는 공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보다는 각 공간의 사람, 물자, 정보, 기업 등의 저장분포(stock)를 기준으로 공간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아직은 유량적 접근에 있어 적절한 측정방법과 이론을 적용한 경우는 드물고, 이 두 지표를 통합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그 필

요성은 절실하다(김홍주, 2007: 4). 측정시점의 분포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량적 접근과 달리 유량적 접근은 일정 기간 동안의 측정대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저량 분석이 주어져 있는 지역의 상태라면 유량적 접근은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유량적 차원에서 공간 상호작용을 통해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O-D행렬과 군집분석을 통해 결절지역과 계층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O-D행렬은 방법론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어 시군에 속한 읍면소재지에 적용하는 데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군단위로의 파악은 시·군 내 중심도시가 인구 등의 측면에서 강한 수위 도시적 성격을 갖게 되면, 시·군에 속한 다른 읍면 등의 농촌지역은 그 성격과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분석을 통해 산출된 지역 간 연계정도를 이용하여 기초수요와 관련된 상점 등의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 등 여타의 통계적 방법론과 연결시킬 경우, 기초수요와 관련된 상점 등이 인구규모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공분산 행렬산출의 제약으로 그 연관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시순위-규모법칙을 적용한 분석방법은 각기 다른 인구규모를 갖는 도시가 수직적으로 분포되어 형성시키는 위계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정시점별 도시순위변동을 파악함으로써 한 국가의 국토공간상에서의 도시공간분포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시·군 내 읍면소재지에 적용할 경우 읍면소재지 성장, 쇠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읍면소재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업단지 조성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시·군에 속한 읍면소재지 간 급격한 성장과 쇠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순위규모법칙을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역거점도시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초는 제공할 수 있으나, 고착된 읍면소재지 간 위계는 큰 변동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읍면소재지의 기초수요 변동을 살펴볼 경우 여타의 읍면소재지 내 위치한 시설을 파악한 연구와 같이 인구규모 변동에 따른 상점 등의 변화 파악은 어려우며, 또 다시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가 존재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설종류를 파악하는 현재와 같은 저량적 방법론으로 연결된다.

지역 내에서 중심지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심과 부도심의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를 보다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에 집중되어

왔으며, 과거와 현재의 중심지 및 도시구조체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왔다(옥석문·이명훈, 2008 : 110). 주로 사용한 방법론은 지가, 사무실 연상면적, 고용자수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이상보다 높으면 중심지, 이보다 낮으면 부도심 혹은 배후지로 보는데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 시각에 의해 중심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위치한 곳에 주로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읍면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 등의 가로망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입지적 특성의 영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달리 빈번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지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과 저량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중심도시와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2. 읍면소재지 관련연구

읍면소재지와 관련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많지 않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199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읍면소재지에 주목하는 연구자도 많지 않다. 주된 연구내용은 첫째, 정주체계 관점에서 읍면소재지 기능유지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김형만, 1974; 이재화, 1979; 정환용, 1980, 강병수, 2003), 둘째, 인구규모별 읍면소재지 시설 및 입지특성에 대한 연구의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전경배, 1974; 김팔규, 1977; 김안제, 1979). 정책적 관점에서 읍면소재지 기능유지를 위한 연구들은 1970년대-1980년대는 주로 지역생활권개념에 바탕을 두고, 읍면소재지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1980년대 정주생활권계획수립에 기초시각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로 대도시주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방향 및 기능배분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읍면소재지 등 농촌활용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1년 「지방읍면소재지육성지원법」에 따른 읍면소재지육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정책방향 및 개발모형 설정 등에서 이전과 달리 읍면소재지를 농촌개발 중심지로 인식한 종합적 접근으로 변화하였다(강병수, 2003; 김정연, 2004).

읍면소재지 내 시설 및 입지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주로 여흥구(1986, 1990, 1992)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후 지남석·여흥구(2007)의 연구에서 인구규모에 따른 읍면소재지 가로망 특성, 지남석 등(2008)은 여흥구(1986, 1990, 1992)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읍면소재지 규모별 입지시설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모두 저량적 방법론을 이용한 것으로 중심도시 영향력이 확대되며, 읍면소재지가 담당하던 중심기능의 상당분이 지역

거점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도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읍면소재지 내 인구변화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분류에 따른 시설종류를 제시하여 읍면소재지 내 위치한 소매점과接客업소의 특성을 명확히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인구규모별로 지역을 구분하고, 시설종류를 파악하는 방식은 통상 인구규모가 크면 상점수가 많다는 점에서 인구규모와 상점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각 시설을 중분류로 분류하여 세부시설이 갖는 특징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구규모를 5천명 단위로 구분하여 살피고 있는데, '09년 현재 1,205개 면 중 최소인구규모는 283명, 최대인구는 102,731명이며, 3천명 미만의 면이 516개, 3천 이상 5천미만이 387개로서 편차가 매우 크며(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인구가 적은 읍면소재지 내에서 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5천명 단위로 읍·면 내 상점시설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소재지 기초생활시설이 지역거점도시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세세분류를 바탕으로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대상지

1. 개념모형 설정

본 연구는 기능지수와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유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입지계수는 해당 지역 내 위치한 산업 종류와 해당지역에서 우위를 갖는 산업부문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나, 동일 산업 내 동종의 기업수를 중심으로 파악되어 개별기업이 갖는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지역 내 소매점과接客업소 분류단위를 세세분류로 유지한 채 공분산행렬산출 제약으로 통계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세분류에 속한 소매점과接客업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도매점 등은 소매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민의 기초수요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매점의 규모 등 질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은 소매점 내 상시고용자수 등을 이용하여 개별소매점의 크기 등 요인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다수 소매점이 상점주인과 가족노동을 활용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기능지수는 산출된 입지계수를 해당지역에 위치한 기업 수를 곱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각 동일 산업 내 기능 크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해 준다. 이 방법론들은 해당지역 수에 관계없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군 내 읍·면수에 관계없이 소매점과接客업소의 성격을 유지한 세세분류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분석방법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행정구역을 종열에, 행정구역별 소매점 및接客시설 종류와 수를 횡렬로 하는 자료행렬을 작성 한 후, 입지계수(1)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능지수(2)를 산출하여,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다음의 식에서 ‘ n = 소매점 및接客시설 종류’, ‘ a_{ij} = i 부문의 j 지역 소매점(接客업소) 수’를 의미한다.

$$(1) CF_i = \frac{1}{\sum_{i=1}^n a_{ij}} \times 100, \quad (2) F = \sum_{j=1}^n E_{ij} = \sum_{j=1}^n CF_j \times a_{ij}$$

입지계수는 대상지에서 업종별 증감을 바탕으로 업종별 성장 및 쇠퇴상태, 기능지수는 해당업종의 지역 간 영향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I 유형]은 입지계수가 커지고 있는 상태로 대상지역(R_1+R_2)에서 해당업종 수는 감소하며, R_1 지역 기능이 R_2 보다 커지고 있는 상태로 R_2 지역 업종수가 R_1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되거나, R_1 지역 업종수가 R_2 지역보다 느리게 감소하는 과정을 통해 R_1 지역의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III 유형]은 대상지에서 해당업종 수가 증가하며, R_2 지역보다 R_1 지역의 기능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R_1 지역 해당업종 수가 R_2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R_1 지역의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2. 연구대상지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를 동지역(이하 공주시)과 읍지역(이하 유구읍)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공주시는 1995년 출현한 도농복합도시로 2010년 시 전체인구의 24.8%가 농가인구인 전형적인 농촌배후도시이다. 공주시

에 위치한 유구읍은 공주시 서북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매점과接客시설의 세세분류자료가 확보 가능한 1990년대 중반까지 14천명의 인구를 유지하다 2011년 현재 9천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여 읍면소재지 쇠퇴과정에 따른 소매점과接客업소 변화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였다.

유구읍은 2008년 12월 수도권과 연결된 전철노선을 확보한 아산시,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와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주시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후도시로서 공주시가 타당한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기간이 1996년에서 2009년임을 감안하여 현재 조성중인 세종시를 배제하였다. 우선 지역 간 연계성과 생활권역 지표로 볼 수 있는 버스노선을 살펴본 결과 2012년 현재 공주시와 유구읍은 직행노선이 44개가 운행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29개 이며, 시내버스 노선은 공주시 53개, 아산시는 31개로 공주시가 약 1.62배 많다. 또한 아산시를 통해 천안, 서울 등의 대도시와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보면 약 1.71배가 공주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유구읍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공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구읍의 지역거점도시는 공주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Figure 1 연구대상지역 인접 시·군.

Table 1 분석에 사용된 개념모형

유형	입지 계수	지역별 추세		설 명
		R_1	R_2	
I	+	+	-	해당업종 전체가 쇠퇴하며, R_2 감소가 R_1 보다 빠른 상태
II	+	-	+	해당업종 전체가 쇠퇴하며, R_2 감소가 R_1 보다 늦은 상태
III	-	+	-	해당업종 전체가 성장하며, R_2 성장이 R_1 보다 늦은 상태
IV	-	-	+	해당업종 전체가 성장하며, R_2 성장이 R_1 보다 빠른 상태

Table 2 유구읍과 공주시 및 아산시와의 버스차편 정도

지역	시외버스		시내버스	
	공주시 (대전경유)	아산시 (서울경유)	공주시	아산시
차편 수	44	29	53	31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를 이용하여 사업체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세분류 단위를 이용하였다. 지역 내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자료는 해당연도 공주시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상의 오류 및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는 중 3차례(3월, 4월, 5월)에 걸쳐 유구읍을 방문하여, 지역실태 및 업종별 경영방식 등에 대한 현장면담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공주시와 유구읍의 지역사회 변동요인은 인구수, 65세 이상인구 수, 초등학교 수, 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구수는 총량적인 수요변화를, 65세 이상인구는 노령인구 수요, 초등학교수는 읍·면·동 연령별 인구수 자료를 공주시 통계에서 제공치 않아 지역 내 유소년 수와 30-40대 인구수에 대한 간접지표로 사용하여 이들 연령층에서 수요상태를 파악하였다. 성비는 성별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개념모형 유형별 세부업종

가. 소매점 및 접객업소 변화

총량적인 수요변화 측면에서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공

주시는 1996-2009년 기간 동안 6,357명이 증가하여 총량적인 면에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유구는 4,759명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수는 공주시에서 1,231명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332명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유구는 199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9년 기준으로 66.3%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노인인구는 두 지역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공주시는 2001년 7.75%에서 11.14%로 증가한 반면, 유구읍은 13.59%에서 22.72%로 공주시의 노령화 속도보다 빠르다. 성비는 공주시는 남성인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유구읍은 여성비율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공주시는 인구에 비례한 총량적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에 해당하는 수요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유구는 유소년과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기초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90년대에 들어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로 재편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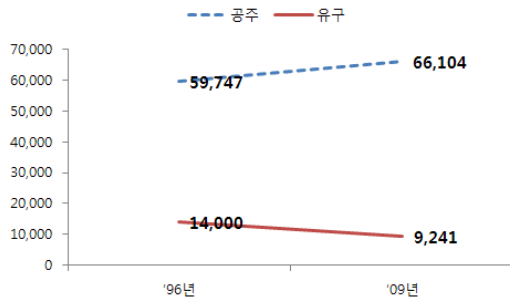
공주시와 유구읍 내 위치한 소매점과 접객시설 종류와 수는 시간흐름에 따라 Table 4와 같이 변화하였다. 공주시와 유구읍 모두 점포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업종이 사라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점포수 변화를 보면, 공주시 점포수는 1995년-2009년간 2,262개에서 2,025개로 10.5%가 감소한 반면, 유구는 35%가 감소하여, 유구읍이 공주보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인구수는 공주시가 10.6% 증가한 반면, 유구는 34%가 감소하였다. 특이점은 공주시는 인구증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종수가 감소하는데 반해, 유구는 인구수 감소와 비례하여 업종수가 감소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기초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거점도시의

Table 3 1995-2009년 간 공주시와 유구읍의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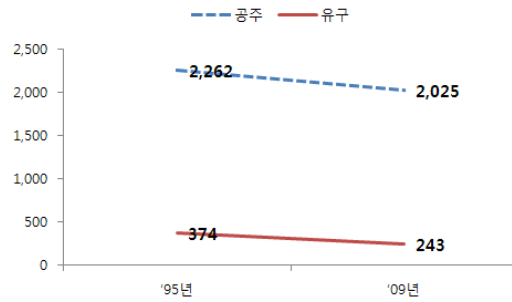
지역	인구		65세 이상인구		초등학교 수		성비	
	1996년	2009년	2001년	2009년	1996년	2009년	1996년	2009년
공주	59,747	66,104	4,915	7,393	5,994	4,781	1.00	1.02
유구	14,000	9,241	1,663	2,100	1,189	401	0.99	0.94

Table 4 연도별 업종변화

지역	총 점포수		1995년 기준 지속업종		2000년 이후 출현업종	
	1995년	2009년	1995년	2009년	2000년	2009년
공주	2,262	2,025	81종	76종	4종	6종
유구	374	243	47종	37종	6종	12종



<인구변화>



<소매점 및接客업소 수 변화>

Figure 2 공주시와 유구읍의 인구 수와 소매점 및接客업소 수 변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거점 도시인 공주시에서는 업종별 규모 확대로 진행되어 점포당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데 반해, 유구읍은 해당지역 인구수에 기초한 수요총량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부침상태는 공주시는 1995년부터 지속된 업종이 76종으로 5개가 사라진 반면, 유구읍은 37종으로 10개 업종이 사라져, 유구읍 감소가 크다. 1995년 이후 새롭게 출현한 업종은 공주시가 2000년에 4종, 유구읍은 6종이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공주는 1995년에 없던

Table 5 1995년 기준 지속된 업종의 점포수 변화

업종	1995 기준		2009 기준	
	공주	유구	공주	유구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277	69	118	32
한식점업	356	57	491	58
셔츠 및 기타 의복	122	20	140	10
육류	76	16	43	13
잡집	89	15	60	11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14	13	83	6
간이 주점업	114	12	152	7
중국 음식점업	39	10	44	6
가구	36	9	17	1
문구용품	47	9	35	7
수산물	46	8	27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42	8	50	7
신발	32	8	21	5
화장품 및 화장비누	42	7	26	4
가정용 직물제품	45	7	25	5
벽지 및 장판류	16	7	28	3
곡물	28	6	11	2
유아용 의류 소매업	20	6	12	1
기타철물,난방용구및건설자재	37	6	16	7
시계 및 귀금속	31	6	19	4
일반유형 주점업	51	6	38	5
식탁 및 주방용품	27	5	16	3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20	5	9	0
여관업	85	5	72	2
담배	9	4	2	0
철물 및 난방용구	34	4	9	3
서적 및 잡지류	28	4	35	7
화초 및 산 식물	30	4	34	3
제과점업	27	4	25	2
통신기기	6	3	43	0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19	3	11	2
운동 및 경기용품	18	3	15	0
과실 및 채소	94	2	54	6
내의	38	2	21	2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10	2	4	0
가전제품	28	2	14	3
안경	8	2	16	2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	5	2	0	0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3	2	4	0
계약배달 판매업	17	2	15	1
일본 음식점업	15	2	7	0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26	2	82	4
남녀용정장	25	1	62	5
음반 및 비디오물	12	1	3	0
기타가정용품	6	1	6	0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11	1	6	1
가스연료	1	1	4	1

업종이 6종, 유구읍은 12종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9년에 공주시에 있는 업종은 82개, 유구읍은 49개로 두 지역 모두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였으며, 유구읍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유구읍에서 업종별 부침이 심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공주시는 시에 속한 다른 읍·면지역 중심지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지역 내 수요에 반영된 결과로 업종별 수요에 대한 부침이 비교적 적는데 반해, 유구는 초등학교 수와 같은 인구구조에 따른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 유구읍 내 위치한 소매점과接客업소의 영향권은 유구읍에 한정된 결과로 보인다.

나. 공주시와 유구읍의 업종별 점포수 변화

1995년부터 2009년 현재 지속된 업종을 대상으로 점포수 변화를 살펴보면, 공주시와 유구읍 모두 감소추세가 강하다. 유구읍은 대체적으로 공주시보다 감소율이 크며 1995년부터 지속된 업종 37개 중 5개 이하 수로 유지되는 업종이 24개로 약 62%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유구읍보다 감소폭이 양호한 상태로 2005년에 사라진 「연탄 및 기타고체연료」를 제외한 전 업종이 유지되었으며, 「한식점업」, 「간이주점업」, 「통신기기」,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등 1995년 대비 점포수가 증가한 업종이 13개로 증가하였다. 「계약배달 판매업」은 유구읍에서 2000년에 사라졌으나, 2005년에 다시 1개가 출현하여 지속되고 있다. 동기간 유구에서 사라진 업종은 2000년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계약배달 판매업」, 「일본 음식점업」, 2005년에는 「담배」,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연탄 및 기타고체연료」,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기타 가정용품」, 2009년 「통신기기」, 「음반 및 비디오물」이 사라져 공

주시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Table 6은 2000년 이후 유구읍에서 새롭게 출현하여 2009년 현재 유지되는 업종으로, 2000년에 6개, 2005년 3개, 2009년 1개 업종이 출현하였다. 「그 외 기타음식점」은 2005년에 유구읍에서 사라졌다가 2009년에 다시 출현하였다. 유구읍에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 특징은 공주시에서 지속되는 업종 중 점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업종이 유구읍에서 출현한다. 이는 곧 읍면소재지 내 새로운 업종출현이 배후도시에서 성장추세를 확인한 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부분은 Fridemann이 논의한 공간변화를 초래하는 혁신의 위계구조가 중심도시와 읍면소재지 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계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슈퍼마켓」과 「체인화 편의점」인데, 공주시에 속한 다른 면을 분석한 결과 「체인화 편의점」은 유구읍에서만 발견되는 데 반해, 「슈퍼마켓」은 공주시에 속한 다른 면지역 중 중심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인 사곡면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체인화 편의점」은 주로 야간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구읍이 공주시에 속한 다른 면에 비해 읍면소재지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슈퍼마켓」은 읍·면지역에서 인구수 감소로 인한 수요감소와 함께 읍면소재지 내 소매점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다. 개념모형 유형별 세부업종과 특징

Table 7은 Table 1의 개념모형에 따른 세부업종을 제시한 결과이다. 유형별 업종 수는 [II 유형]이 20개로 가장 많고, [IV 유형]은 4개로 가장 작은 수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공주시와 유구읍 모두에서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은 16개(III+IV 유형)이고, 감소하는 업종은 38개 (I + II 유형)로 업종전체는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Table 6 1995년 이후 새롭게 출현 업종 점포수 변화

업종	1995년	유구출현시점기준		2009년		유구출현시점
	공주	공주	유구	공주	유구	
그 외 기타 음식점업	4	67	6	9	1	2000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6	6	2	7	1	2000
예술품 및 골동품	3	7	1	7	1	2009
액체연료	5	8	1	3	1	2000
체인화 편의점	3	11	1	31	2	2005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10	25	1	22	2	2000
기타식품	23	18	1	21	2	2000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16	14	1	11	2	2005
서양 음식점업	25	31	1	19	3	2000
슈퍼마켓	2	15	3	18	3	2005

보인다. 이 중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업종은 30개(I+III유형)이며, 공주시 기능강화는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구읍 기능강화는 소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거점도시의 영향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변화특성과 함께 각 유형별 업종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I 유형] : 해당업종 전체가 감소하며, R_2 (읍면소재지) 감소가 R_1 (거점도시)보다 빠른 상태

[I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1995년에서 2009년간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점포수가 동시에 감소하며, 유구읍이 공주시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향후 유구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이 중 동 기간 공주시와 유구읍의 기능지수 차가 10이상 확대된 업종은 「가구」, 「유아용 의류」,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담배」, 「운동 및 경기용품」,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일본음식점」, 「기타가정용품」이다. [I 유형]에 속하는 업종의 특성은 첫째, 선물용품,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유아용의류와 같이 비교적 젊은 층에게 필요한 용품을 공급하는 업종이라는 점, 둘째, 일식집,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경기용품 등의 고급음식점 및 여가 및 취미와 관련되는 업종의 특징을 갖는다. 이 중 「가구」는 현장조사 결과 현재 부엌싱크대 등 부엌가구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개량에 필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2) [II 유형] : 해당업종 전체가 감소하며, R_2 (읍면소재지) 감소가 R_1 (거점도시)보다 늦은 상태

[II 유형]에 포함된 업종은 점포수는 감소하나, 공주시가 유구읍보다 점포수 감소가 빠르게 감소하는 업종으로, 당분간 유구읍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업종 중 기능지수가 동 기간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기타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철물 및 난방용구」, 「가전제품」으로 주로 식품과 소규모 주택개량 등에 필요한 용구를 공급하는 업종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세식 등 주택개량과 노인층을 위한 난방시설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III 유형] : 해당업종 전체가 성장하며, R_2 (읍면소재지) 성장이 R_1 (거점도시)보다 늦은 상태

[III 유형]은 공주시와 유구읍 두 지역에서 점포수가 증가하되, 공주시가 유구읍보다 좀더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으로,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업종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간이 주점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벽지 및 장판류」, 「화초 및 산식물」, 「통신기기」, 「안경」,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체인화 편의점」이다.

업종으로 살펴본 유형특징을 살펴보면, 「벽지 및 장판류」와 같이 이사 혹은 신규주택 수요가 많으며 빈번한 인구 유·출입과 「화초 및 산식물」등의 선물과 화환 등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업종의 진·출입이 많은 곳에

Table 7 유형별 세부업종

유형	입지 계수	지역별 추세		업종 수	세부업종
		공주	유구		
I	+	+(11.85)	-(-11.85)	18	분식 및 김밥전문점, 가구, 수산물, 신발, 화장품 및 화장비누, 곡물, 유아용의류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여관업, 담배, 제과점업, 운동 및 경기용품,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계약 배달 판매업, 일본 음식점업, 음반 및 비디오물, 기타가정용품
II	+	-(-7.41)	+(7.41)	2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육류, 찻집, 문구용품, 가정용 직물제품, 기타 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시계 및 귀금속, 일반유흥 음식점, 식탁 및 주방용품, 철물 및 난방용구,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 과일 및 채소, 내의, 가전제품,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액체연료, 기타 섬유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서양 음식점업
III	-	+(10.08)	-(-10.08)	12	한식점업, 셔츠 및 기타의복, 간이 주점업, 중국 음식점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벽지 및 장판류, 화초 및 산식물, 통신기기, 안경,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가스연료, 체인화 편의점
IV	-	-(-4.12)	+(4.12)	4	서적 및 잡지류, 남녀용 정장, 기타식품, 슈퍼마켓

* 굵은 글씨는 2000년 이후 유구에서 새롭게 출현한 업종임

Table 9 지역별 유형 내 유지 및 증가한 업종

유형	공주시	유구읍
I 기타 가정용품		-
II	-	기타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과일 및 채소, 내의 , 가전제품,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 액체연료 , 기타섬유·직물 및 의류 액세서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서양음식점업
III	한식점업, 셔츠 및 기타의복, 간이 주점업, 중국 음식점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벽지 및 장판류, 화초 및 산식물, 통신기기, 안경,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가스연료, 체인화 편의점	한식점업, 안경점 ,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가스연료 , 체인화 편의점
IV 서적 및 잡지류, 남녀용정장, 슈퍼마켓		서적 및 잡지류, 남녀용 정장, 기타식품, 슈퍼마켓

※ A로 표현된 업종은 1995-2009년간 업종수가 유지된 업종임

서 소비되는 업종으로 보이며, 「통신기기」,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과 같이 젊은 층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업종들이다.

4) [IV유형] : 해당업종 전체가 성장하며, R_2 (읍면소재지) 성장이 R_1 (거점도시)보다 빠른 상태

[IV유형]은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 중 유구읍을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업종이다. 해당 업종은 「서적 및 잡지판매」, 「남녀용 정장」, 「기타식품」, 「슈퍼마켓」으로, 공주시에서는 점포수가 감소한 반면, 유구읍에서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유구읍에서 해당업종 수가 1~4개로 소수로서 지역사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서적 및 잡지판매」의 경우 유구읍에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년 4개에서 2009년 7개로 증가하는 이상치가 발생하여 유구읍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 서점은 1개만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학원 등에서 소규모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라. 개념모형 유형별 증감상태 및 특징

공주시와 유구읍의 유형별 증감상태를 보면,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I 유형]과 [III유형]은 모두 기능지수는 강화되고 있으나, [III유형]만이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구읍으로 기능지수가 강화되는 [II 유형]과 [IV유형] 중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IV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즉 [I 유형]은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점포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구읍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 거점도시인 공주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며, [II 유형]은 공주시가 유구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유구읍의 기능지수가 강화된 것이다.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성장하고 있는 [III유형]은 공주시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구읍에서는 오히려 1995년 대비 23개가 감소하고 있다. [IV유형]은 유구읍의 기능지수가 2009년에 들어 9개 증가하여 기능지수가 16.5 강화되었으나, 점포수와 기능지수가 공주시가 유구읍보다 월등히 높아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

Table 8 유형별 점포수 및 기능지수 변화

	공주				유구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업종수	1995	540	964	763	76	88	153	126	5
	2000	438	951	878	64	48	167	125	5
	2005	424	648	973	80	34	118	101	5
	2009	359	549	1115	118	26	113	103	14
전 체	-181	-415	352	42	-62	-40	-23	9	
기능지수	1995	1495.5	1816.1	973.5	283.7	304.5	183.9	226.5	16.3
	2000	1571.0	1742.4	1065.9	279.8	229.0	257.6	134.1	20.2
	2005	1681.9	1732.2	1073.4	284.5	118.1	267.8	126.6	15.5
	2009	1708.8	1668.0	1094.5	267.2	91.2	332.0	105.5	32.8
전 체	213.3	-148.1	121	-16.5	-213.3	148.1	-121	16.5	

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공주시는 쇠퇴하는 업종이 모두 감소하되 기능지수 약화는 크지 않다. 성장하는 유형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기능지수가 공주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구읍보다 빠른 업종감소를 보이는 [II 유형]의 경우에도 공주시의 업종 수는 약 43%가 감소한데 반해 기능지수는 약 8% 감소에 불과하다. 또한 공주시는 점포수 증가가 성장형에 속하는 [III 유형], [IV 유형]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구읍은 성장형인 [III 유형]마저 감소하고 있어, 지역거점도시로의 기능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향후 지역거점도시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읍면소재지는 쇠퇴하는 업종 중 [II 유형]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읍면소재지 쇠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업종 증감을 세세분류로 제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I 유형]에 속하는 전 업종은 공주시와 유구읍 모두 감소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공주시에 위치한 업종은 사라진 것이 없는 반면, 유구읍에서는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담배」, 「운동 및 경기용품」,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일본음식점업」, 「음반 및 비디오물」, 「기타가정용품」 등 8개 업종이 사라졌으며, 유형에 속하는 평균업종수도 1995년 4.78에서 2009년 1.44로 대폭 감소하여, 유구읍에서 점차로 젊은 층 및 여가, 취미 등의 비교적 삶의 여유를 찾는 계층과 관련되는 업종이 사라지고 있었다.

[II 유형]은 공주시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유구읍에서는 6개 업종이 증가하였으나, 「과실 및 채소」 4개, 「서양음식점업」 2개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단 1개씩 증가하였다. 「서양음식점업」을 유구읍을 방문하여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며 경양식, 맥주집, 커피숍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농촌에서 부족한 젊은 층의 주된 여가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타철물·난방용구 및 건설설치재」, 「가전제품」 등의 업종이 성장하고 있어, 유구읍은 식료품과 소규모적인 주택개량 등과 관련되는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III 유형]에 속한 전 업종은 공주시에서 점포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한식점업」, 「피자·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체인화 편의점」이 매우 큰 성장을 보였다. 체인화 편의점을 제외한 1995년 평균 업종 수는 44.7에서 63.8로 증가하였다. 반면 유구읍의 「통신기기」업종은 사라지고,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만이 2개에서 4개로 성장하며, 그 외 성장업종은 각 1개씩만 증가하였다. 즉 공주시

는 전업종이 고른 성장을 보이는데 반해, 유구는 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IV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두 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나, 유구읍에서 「남녀용정장」업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유형별 변화가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시점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Figure 4이다. 각 Figure에서 가로축은 입지계수, 세로축은 기능지수를 나타낸다. 입지계수 증가는 곧 해당업종의 감소를 의미하며, 기능지수 증가는 해당업종의 기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I 유형]에 속하는 업종 대부분은 입지계수가 증가하는 상태로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업종전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보인다. 기능지수변화는 1995-2000년에 주로 이루어지고, 2005-2009년 기간에는 공주시와 유구읍에서 안정화된 상태를 보이나, 지속적인 업종감소가 이루어진다. [II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1995-2000년에는 입지계수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 「액체연료」를 중심으로 업종수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입지계수는 큰 변동이 없고 공주시는 기능약화가 유구읍은 기능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2009년에는 거의 전 업종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유구읍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III 유형]은 1995-2000년에는 입지계수 변동은 크지 않으나,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2005-2009년 기간에 입지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동 시기에 업종수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5-2000, 2005-2009년 모두 공주시 중심으로 기능강화가 뚜렷하며, 비교적 2005-2009년 기간 동안 공주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V 유형]은 「서적 및 잡지류」, 「기타식품」 업종은 1995-2000년에는 업종 수가 감소하였으나, 2005-2009년에는 유구읍을 중심으로 기능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공주시에서 쇠퇴하는 업종이 유구읍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공주시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구읍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형별 기능지수 및 입지계수 변동과 Table 8의 연도별 증감상태를 토대로 살펴보면 [I 유형]은 1995-2000년에 주로 업종감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005-2009년에는 공주시와 유구읍의 기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I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업종감소 시기가 빠르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역 간 기능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 유형]은 2000-2005년에 주로 업종 수가 감소하며, 지역 간 기능지수는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업종감소를 보인다. [III 유형]은 전 기간 동안 공주시에서 업종 수가 지속적으로

유량적 접근을 통한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의 중심기능 및 기초수요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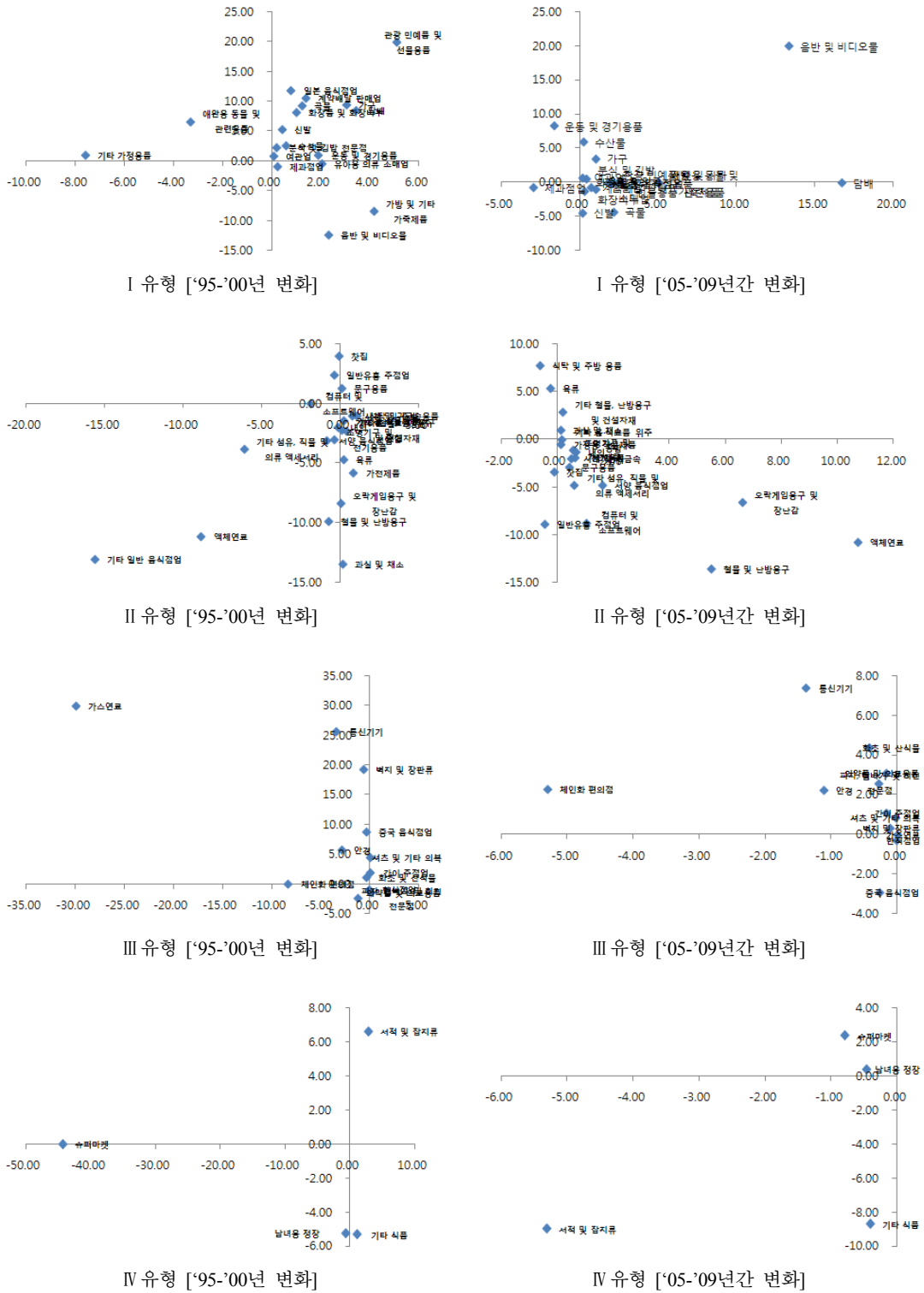


Figure 3 연도별 공주시 유형별 업종의 입지계수와 기능지수 변화.

증가하는데 반해, 유구읍은 대체적으로 감소형태를 보이며,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된다. [IV 유형]은 공주시에서 1995-2000년에 일시적인 감소를 보이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유구읍은 2005-2009년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개념모형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종합해 보면, 공주시로의 중심기능 강화가 뚜렷한 가운데 유구읍에서 점포수가 증가하는 업종은 소규모 주택개량과 관련되는 부문과 식료품 공급과 관련되는 업종이며, 성장하는 업종도 식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유구읍이 점차로 매식중심 여가문화의 소비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I 유형]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II 유형]이 그 다음단계에서 감소하고 있어 유형별 감소시점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유형 중 [III 유형]은 공주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IV 유형]은 공주에서 업종 수가 증가한 가운데, 유구읍에서 이후에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2.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의 기초수요 변화요인

개념모형으로 분석된 유형별 기능지수가 인구 수, 성비, 초등학교 수, 노인인구 수와 같은 지역사회 변동요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일 종속변수일 경우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의 결과는 중복될 수 있으나, 통계분석을 시도한 목적은 공분산 행렬문제에 의한 통계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중요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상관분석결과 [I 유형]은 공주시에서 인구 수

즉, 인구규모와 관련되는 반면 유구읍은 인구수, 성비, 초등학교 수와 정(正)의 관계를 보여 이들과 관련된 업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유구읍의 경우 절대적 수요가 약한 상태로 모든 노인인구를 제외한 전체층의 수요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구읍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양음식점과 같이 업종경영의 다각화가 이루지고 있는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I 유형]은 공주시에서 인구수, 노인인구와 부(負)의 관계를 보이나, 유구읍은 인구수, 초등학교 수와는 부(負)의 관계, 노인인구와는 정(正)의 관계를 보여 공주시에서는 젊은 층과 관련되는 업종인데 반해, 유구읍은 노인과 관련된 업종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현장조사와 업종별 증감상태를 확인할 결과에서 엿볼 수 있다. 노인층의 편리한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에 따른 난방과 부엌 등 소규모 주택개량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III 유형]은 공주시에서 인구 수 및 노인 수와 총량적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구읍에서는 인구 수, 성비와 정(正)의 관계를 보여 유구읍 인구와 여성과 관련된 부문이다. 노인인구와는 부(負)의 관계를 보인다. [IV 유형]은 유구읍에서 인구 수, 초등학교 수와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공주시는 노인인구만 부(負)의 관계를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한 업종은 공주에서는 노인층을 제외한 사람의 수요에 대응한 업종인 반면, 유구읍에서는 인구수를 통해 본 절대수요와 중장년층 및 유소년과 관련한 업종이 속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된 4가지 유형별 기능지수를 독립변수로 인구 수,

Table 10 지역사회 변동요인과 유형의 상관분석결과

공주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인구	성비	초등	노인인구
I 유형	1	-0.913	0.890	-0.676	0.967**	0.175	-0.486	0.882
II 유형		1	-0.940*	0.865	-0.959**	-0.386	0.634	-0.981**
III 유형			1	-0.930*	0.977**	0.600	-0.333	0.983**
IV 유형				1	-0.840	-0.794	0.305	-0.938*
인구					1	0.416	-0.429	0.967**
성비						1	0.259	0.549
초등							1	-0.487
노인인구								1
유구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인구	성비	초등	노인인구
I 유형	1	-0.913*	0.89	-0.939*	0.997***	0.951**	0.988**	-0.889
II 유형		1	-0.94*	0.867	-0.941**	-0.82	-0.953**	0.921*
III 유형			1	-0.729	0.906*	0.905*	0.888	-0.998***
IV 유형				1	-0.943*	-0.792	-0.961**	0.713
인구					1	0.935*	0.996***	-0.901*
성비						1	0.900	-0.921*
초등							1	-0.878
노인인구								1

*(0.1>p), **(0.05>p), *** (0.01>p)

성비, 초등학생 수, 노인인구 수와 같은 개별 지역사회 변동요인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1이다. 공주시 지역사회 변동은 [III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변동요인 중 인구는 정(正)의 관계, 노인인구는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II유형]은 해당업종 전체가 성장하며, 읍면소재지 성장이 도시보다 늦은 상태로, 지역거점도시인 공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유구읍보다 공주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한 업종이 신규주택 수요가 많아 빈번한 인구 유출입과 「화초 및 산식물」 등이 개업식 및 각종 경조사 의 화환 등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업종의 진·출입 등이 많은 곳이라는 점이며, 이 부분에 속한 「피자·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등이 주로 젊은 층의 소비와 관련되며, 「통신기기」, 「안경」과 같이 모든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인구규모의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주시 기초수요 변동과의 관련은 인구규모 크기와 관련되는 요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노인인구와 부(負)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소유하고, 젊은 층의 소비패턴에 익숙하여 노인인구의 소비도 점차로 젊은 층과 대동소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이 유형에 속하는 업종은 「통신기기」와 같이 전 연령층에게 필수품화 되는 업종이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벽지 및 장판류」와 같이 모든 연령층의 수요가 동일한 업종이다.

반면, 유구읍은 [I 유형]과 [III유형]이 지역사회 변동을 설명하였다. [I 유형]은 인구 수, 성비, 초등학생 수를

정(正)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III유형] 은 공주시와 동일한 결과로 노인인구와 [III유형]은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주시와 달리 유구읍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11.8%에서 2009년 22.7%로 약 두배 정도 증가했으나, [III유형]과 부(負)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주시의 경우 노인인구의 수요가 젊은 층과 비슷해지는 데 반해 유구읍 노인인구 수요는 공주시 노인인구에 비해 경제력과 소비유형의 젊은 층과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구의 빈번한 진출입 등의 지역사회 활력요인도 지역거점도시보다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유형]이 인구($\beta=0.997$), 성비($\beta=0.951$), 초등생 수($\beta=0.988$)와 정(正)의 관계를 보이는데, [I 유형]은 해당업종 전체가 감소하며, 읍면소재지 감소가 거점도시보다 빠른 상태로 이 유형에 속하는 업종이 주로 젊은 층과 고급화된 여가 및 취미와 관련되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인구수와 같은 절대수요 감소에 의해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비의 경우 성비증가는 곧 노령화의 간접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다¹⁾는 점에서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관련되어 절대인구 감소에 의한 기초수요 변화가 유구읍에서 가장 큰 요인임을 증거하는 요인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입지계수와 기능지수를 활용한 개념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공주시와 유구읍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서비스의 변화 상태를 분석하였

Table 11 공주시와 유구읍의 유형별 기능지수에 따른 지역사회 변동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지역	부문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F	Sig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수준
							B	표준오차	BETA		
공주시	인구	.977	.954	.931	41.502	0.023	상수	10294.286	8277.449	1.244	.340
							III유형	50.649	7.862	.977	6.442
	노인 인구	.983	.967	.950	58.406	0.017	상수	-55241.239	7795.495	-7.086	.019
							III유형	56.586	7.404	.983	7.642
유구읍	인구	.997	.994	.991	349.872	0.003	상수	7433.103	234.455	31.704	.001
							I 유형	21.434	1.146	.997	18.705
	성비	.951	.904	.856	18.831	0.049	상수	.908	.012	75.910	.000
							I 유형	.000	.000	.951	4.339
	초등 생수	.988	.977	.965	84.262	0.012	상수	145.874	76.891	1.897	.198
							I 유형	3.450	.379	.988	9.179
노인 인구	.998	.996	.995	553.367	0.002	상수	4041.358	117.373	34.432	.001	
						III유형	-17.781	.756	-.998	-23.524	.002

다. 우선 유량적 접근방법은 기능지수와 입지계수를 이용한 개념모형 설정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였다. 기존의 저장적 접근방법에서도 읍면소재지의 변화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추세를 확인하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지역거점도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량적 접근은 지역거점도시에 영향을 받는 읍면을 더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으며, 공분산 행렬의 제약에서 벗어나 인구학적 변인,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변동요인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의의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례지역인 공주시와 유구읍의 기초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주시는 유구읍보다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며, 유구읍은 시간흐름에 따른 업종별 진·출입이 더 많았고, 유구읍 내 새로운 업종 출현은 지역거점도시에서 성장추세를 확인 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구읍은 인구수 감소와 점포 수 감소가 일치하는데 반해, 공주시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업종수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구읍 내 소매점과 접객업소 영향권이 유구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유구읍 내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공주시는 다른 읍·면의 배후지로서 중심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에 기초한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보이며, 공주시에서 업종 수 감소는 동종업종 간 경쟁 등에 의해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유구읍 쇠퇴와 공주시 중심기능 강화가 뚜렷하였다. 성장유형에 속하는 업종 대다수가 공주시에서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고, 쇠퇴유형에 속하는 업종의 점포수는 유구읍과 비슷한 형태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수준의 기능지수는 공주시와 유구읍간 격차가 매우 크다. 유구읍은 주로 식료품과 소규모 주택개량 등과 관련되는 업종,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포수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젊은 층과 여가, 취미 등의 활동과 관련되는 업종은 빠르게 사라졌다. 즉 유구읍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부엌, 난방 등을 위한 소규모적인 주택개량과 매식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택개량 및 읍면소재지 내 계층별 수요에 따른 다양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구읍과 지역거점도시에 위치한 업종의 유형별 변화는 증감시점이 상이하다. 유형별 증감상태는 쇠퇴업종 중 젊은 층과 문화·여가 등 고급화된 수요와 관련되는 유형이 분석기간 초기에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유형이 그 후에 발생하나, 현재까지 공주시와 유구읍 간 기능지수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비교적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업종은 후반에 발생한다. 성장업종 중 공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강화되는 업종은 공주시를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유구읍 중심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공주시에서 성장 한 후 쇠퇴할 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비교적 적은 수로 지역사회 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중심이었다.

넷째, 지역사회 변동요인과 소매점 및 접객업소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주시는 인구수에 기초한 총량적 수요와 노인인구 수요에 반응하고 있는 반면, 유구읍은 학생수, 성비, 노인인구가 복합화된 상태로 유형별 관련을 맺고 있어, 유구읍 내 기초수요가 약한 상태에서 업종이 다각화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전국의 지역거점도시와 읍면소재지 변화에 주는 시사점은 향후 읍면소재지 기능은 점차로 쇠퇴하고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 등의 기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개선과 다양한 여가문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거점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기초수요가 점차로 젊은 층과 비슷해지고 있는 반면, 읍면소재지 노인인구의 수요는 그렇지 못하며, 읍면소재지 내 소매시설 및 접객시설 등의 기초수요 변화는 인구감소로 인한 절대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볼 때, 향후 농촌개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점면 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자영업자 등이 지역 내 시장수요에 따라 변화하는 업종이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중심에 두고 정보화 등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읍면소재지 내 대다수 기초수요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읍면소재지 내 시장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읍면소재지 내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향을 거점면개발사업 내용에 포함시키고, 지원방향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나 다수가 도시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일정비용을 배정하거나 농촌 내 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읍면소재지 내 기초수요 제공기능은 자영업자 자신의 경제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읍면소재지 내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기능이 약화될 경우, 농촌지역 생활

환경과 주민생활은 더욱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도 노령화된 농촌주민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향을 논의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읍면소재지와 지역거점도시 간 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시간거리 축소 등의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역거점도시 내 위치한 서비스권역 확대와 영향력 증대와 관련된 업종 별 영향력 등과 기초수요가 소득 등의 변인에 의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추후연구과제로 남기며, 읍면소재지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지역거점도시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유량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역변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읍면소재지 및 농어촌정주체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제공과 읍면소재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1) 통계청의 '2009년 생명표'에 의하면 남자 77세, 여자 83.8세로 여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노동력 수요가 높은 특정부문의 인력 수요가 높지 않은 일반화된 농촌지역의 경우 노령화의 간접지표로 활용가능하다.

참고문헌

1. 강병수, 2003, 소도읍의 개발모형 설정과 발전전략, 공공문제와 정책, 15, 7-32
2. 강지은, 윤철현, 허성곤, 2003, 도시산업구조가 도시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7), 187-200.
3. 김안제, 1979, 2000년대 한국도시의 미래상 : 소도읍, 중소도시 및 농촌의 도시화전망과 개발, 도시문제, 14(4), 44-50.
4. 김정연, 2004, 지방활성화를 위한 소도읍의 새로운 잠재력과 전략, 충북개발연구, 15(2), 1-19.
5. 김팔규, 1977, 소도읍기능화전략, 지방행정, 26(289), 42-51.
6. 김홍주, 2007, 창조적 지식창출량의 분포와 네트워크로 본 국토공간 계층구조, 국토연구, 53, 3-20.
7. 김형만, 1974, 대도시주변의 소도읍 개발방향, 도시문제, 9(4), 16-22.
8. 박수영, 1996,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9. 박현신, 김광식, 2004, 도시의 순위-규모 변화분석 : 1969~2002년 도시인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9(7), 7-21.
10. 안중현, 2004, 소도읍 중심가로변 도시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 231-238.
11. 양상언, 여홍구, 2008, 읍·면지역의 공간구조 패턴 분석, 지리학연구, 43(2), 425-439.
12. 여홍구, 1992, 소도읍 중심지 상업시설규모 변화 분석, 국토계획, 27(4), 189-205.
13. 여홍구, 1990, 소도읍 중심지내 입지시설의 분포특성 분석, 국토계획, 25(3), 5-33.
14. 여홍구, 1986, 한국소도읍 중심지의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1(3), 75-96.
15. 옥석문, 이명훈, 2008, 중심지 체계설정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도시행정학보, 21(1), 107-125.
16. 이재화, 1979,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지방행정. 28(307), 94-103
17. 전경배, 1974, 농촌지역의 구매시설에 관한 연구, 건축, 18(2), 3-7.
18. 정환용, 1980, 지방도시개발과 정주권계획 : 소도읍 기능화와 정주권개발 : 전남 소도읍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15(2), 53-64.
19. 지남석·여홍구·김채련. 2008. 소도읍의 중심지인구와 입지시설 분포의 관계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4(3). 195-204.
20. 지남석·여홍구. 2007. 소도읍 중심부의 토지이용 변화분석. 국토계획. 42(7). 25-41.
2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09년. 3월 30일자). 읍·면·동 및 통·반 2년새 5,400개 줄어 : 시·군·구는 지역간 인구편차 등 불균형 현상 커.

접 수 일: (2012년 10월 19일)

수 정 일: (1차: 2012년 11월 2일, 2차: 11월 15일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28일)

■ 3인 익명 심사필